

“공기업 민영화 월드컵 물살 탈까?”

산자부, 다국적기업들의 한국투자전략 논의 ... 관심 많으나 아직은...

산업자원부는 2002년 5월30일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급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월드 비즈니스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다국적기업들의 한국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헤닝 슐트놀르 알리안츠 회장, 헬무트 판케 BMW 회장, 마쓰시다 마사유키 마쓰시다 부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Vivendi Water, Dow-Corning, 델파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의 CEO급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

World Business Leaders Round Table 2002 참석자 명단

국 가	회사명(업종)	참석자(직책)	비 고
미국 (16)	Dow Corning (화학)	Mr. Gary E. Anderson (Chairman & CEO)	◦ Session II 지정토론 ◦ 전세계 40여개 공장 및 서비스센터 보유
	Delphi Corporation (자동차 부품)	Mr. David B. Wohleen (Executive Vice President & President of Electronics and Mobile Communication Sector)	◦ Session I 지정토론 ◦ 자동차부품 제조 세계 1위 ◦ 전세계 31개국 190여개 공장 보유
	Microsoft (소프트웨어)	Mr. Orlando Ayala (Group Vice President/ Worldwide Sales & Marketing)	◦ 세계 1위의 소프트웨어 회사
	Mirant (에너지)	Mr. Frederick D. Kuester (Senior Vice President & Asia-Pacific CEO)	◦ 북미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회사, 전세계 2만2000MW의 전력 생산능력 보유
	Compaq (컴퓨터)	Mr. Paul Chan (Senior Vice President)	◦ 세계 3대 컴퓨터 회사로 최근 HP와 합병 ◦ Chan은 합병법인의 Asia 사장
	Exxon Mobil (석유정제)	Mr. Ron Billings (Vice President / Gas marketing company)	◦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 Gas Marketing Compny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회사
	Infodisc Technology (전자제품)	Mr. S.W. Park(CEO)	◦ 잠재투자자
	Clark Material (지게차)	Mr. Kevin M. Reardon (President & CEO)	◦ Session II 지정토론 ◦ 한국을 R&D 본부 및 세계 3대 생산본부의 하나로 지정
	Texas Pacific Group (금융)	Mr. David Bonderman (CEO & Managing Partner)	◦ 전세계에서 80억달러 이상의 펀드 관리
	Air Products (화학)	Mr. Mark L. Bye (CEO/ Air Product Asia)	◦ 잠재투자자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개선된 한국의 기업환경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생활환경 및 기업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에 힘쓸 것이며,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지역본부 이전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

석은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해외 CEO들은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영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orld Business Leaders Round Table 2002 참석자 명단

국 가	회사명(업종)	참석자(직책)	비 고
미국 (16)	EDG (SOC)	Mr. William E. Denton (President & CEO)	◦ 잠재투자자
	Columbia University	Dr. Robert A. Mundell (Professor)	◦ 19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S&P	Mr. Robert E. Richards (Managing Director/ North Asia)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 미국 3대 주가지수의 하나인 S&P 500지수 발표
	Armao & company (금융)	Mr. Robert F. Armao (Chairman)	◦ 잠재투자자
	Blum Capital (금융)	Mr. Richard C. Blum (Chairman & CEO)	◦ 잠재투자자
	DMG (금융)	Mr. David E. Moray (Chairman & CEO)	◦ 잠재투자자
캐나다 (3)	Tigerdev Inc. (SOC)	Mr. François Prevost (CEO)	◦ 국제적인 스키리조트 개발 전문기업
	Bachynsky Realty (SOC)	Mr. Richard Bachynsky (CEO)	◦ 동유럽 및 아시아 인프라 투자 및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추진
	CDP Capital (금융)	Mr. François Geoffrion (Executive Vice-President)	◦ 잠재투자자
영국 (3)	Shell Gas & Power (에너지)	Mr. Peter De Wit (President/ Asia Pacific Region)	◦ 세계 3대 석유회사
	BP PLC (에너지)	Dr. Gary W. Dirks (Group Vice President)	◦ 세계 3대 석유회사
	BAE Systems (항공)	Mr. David Singleton (Senior Director & CEO of AMS)	◦ 세계 4위 항공우주회사
네덜란드 (2)	AKZO NOBEL (화학)	Mr. Fritz W. Frohlich (Vice Chairman & CFO)	◦ Session II 지정토론 ◦ 세계 제1위 화학제품 제조기업
	ASML Holding N.V. (반도체 장비)	Mr. David P. Chavoustie (Executive Vice President & Member of the Board of Management)	◦ 세계 2위의 Wafer Steeper(반도체제조의 핵심장비) 제조기업
독일 (4)	Allianz (금융)	Dr. Henning Schulte-Noelle (Chairman)	◦ 유럽 최대의 보험회사로 세계 4대 금융그룹 ◦ Session I 지정토론
	BMW (자동차)	Dr. Helmut Panke (Chairman)	◦ 고급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제조 대표기업
	Lahmeyer (환경)	Dr. Henning Nothdurft	◦ 잠재투자자
	Stabilus (자동차부품)	Mr. Michael Gnann (CEO)	◦ 자동차용 가스스프링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

알리안츠의 헤닝 숄트노엘 회장은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 금융규제가 많으며 특히 은행의 1/3이 여전히 국유화되어 있어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델파이의 데이빗 홀린 부사장은 “기업회

계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노동시장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싱가폴, 홍콩, 상하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World Business Leaders Round Table 2002 참석자 명단

국 가	회사명(업종)	참석자(직책)	비 고
프랑스 (3)	Vivendi Waterl (환경)	Mr. Olivier Barbaroux (CEO)	◦ Vivendi Universal 자회사 ◦ 상하수도·폐수처리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 ◦ Session I 지정토론
	Alstom (산업용장비)	Mr. Etienne De (CEO of Alstom International & Group Senior Vice President)	◦ 고속철도·지하철 시장 세계 1위 ◦ 송배전 및 원자력 증기터빈 세계 1위
	Lafarge (건설재료)	Mr. Michel Rose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 시멘트 및 콘크리트 부문 세계 2위
스페인 (1)	Euro Chamber	Mr. Antony Negre I Villavecchia (Vice President)	◦ 유럽 36개국 1500여개 이상 의 상공회의소 연합
스위스 (1)	Nestle S.A. (식품)	Dr. Werner Bauer (Executive Vice President/ Technical, Production, R&D)	◦ 세계 1위의 식품기업 ◦ 세계 70여국에 500여개의 공장 보유
벨기에 (1)	Tractebel (에너지)	Mr. Dirk Beeuwsaert (CEO / Tractebel Electricity & Gas Int'l)	◦ 세계5위의 민간 전력 공급 기업으로 100개국에서 활동
노르웨이 (1)	Odjell (물류)	Mr. Jan Arthur Hammer (Senior Vice President)	◦ 잠재투자자 ◦ 세계 해상운송 점유율 25%
일본 (5)	Matsushita Electric Co. (전자제품)	Mr. Masayuki Matsushita (Vice Chairman)	◦ Session II 지정토론 ◦ 파나소닉, National 상표로 유명한 세계1위 가전기업
	Toshiba (전자제품)	Mr. Takeshi Nakagawa (Senior Vice President & President of Semiconductor Company)	◦ 세계 1위의 노트북 제조기업 세계 7위의 가전기업
	Toray (화학)	Dr. Sadayuki Sakakibara (Executive Vice President)	◦ 잠재투자자 ◦ 일본 1위의 섬유기업
	Soft Bank (금융)	Mr. Masayoshi Son (CEO)	◦ Session I 지정토론 ◦ 600개 벤처기업 지주회사
	Taiheiyo Cement (건설재료)	Mr. Kazusuke Imamura (Chairman & Representative Director)	◦ 일본 최대의 시멘트 생산 기업

Akzo Nobel의 프리츠 프롤리히 부회장과 Dow-Corning의 게리 앤더슨 회장은 "한국정부가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움직이는 기업들은 지역본부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으며, 좀더 넓은 범위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해외 CEO들은 한국이 그 동안 기울여온 경제회복과 투자환경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Vivendi Water의 올리비에 바바로 회장은 "경제위기를 3년만에 극복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로 정부와 기업, 노동자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S&P의 로버트 리차드 상무는 "한국

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서울을 장기적인 거점으로 육성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벨기에의 에너지기업인 트랙터빌의 더크 베유스워트 회장은 “그동안 한국기업들과 가스, 수자원 개발분야에서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전기산업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분리매각을 추진중인 한전 발전자회사 인수에 참여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외 CEO들이 제기한 한국경제의 문제점들과 관련해 “발전파업 당시 정부가 엄격한 노동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파업을 끝낼 수 있었으며, 이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운동의 강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잘못된 회계관행에 대한 개선노력도 많이 기울여 중소기업들까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익을 소액주주 및 노동자들과 나눠 가지려고 애쓰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OECD 회원국으로서 금융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6/ 03 >